

전자투표·전자위임장
모바일서비스 오픈 기념식

祝 辭

2017. 12. 20(수) 10:05 ~ 10:10
한국예탁결제원 12층 세미나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 종 구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I. 인사 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새도우보팅제도 일몰과 관련하여
의결권 행사 강화와 주주총회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전자투표서비스」는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주주총회 참여 활성화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이 자리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뜻 깊은 자리에 초대 주신 한국예탁결제원 이병래 사장님과
시스템 개발에 힘써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99년 ‘서면투표제도’가 도입되었고,
2009년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된데 이어,
오늘부터는 ‘모바일 전자투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주들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뿐만아니라,
기업의 업무현황, 주주총회 일정과 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총 활성화에 혁신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II. 새도우보팅 폐지의 필요성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91년 도입되어 지난 26년간
상장기업들의 주주총회 운영을 지원해주던
새도우보팅 제도가 올해말 일몰될 예정입니다.

그간 새도우보팅 제도는 상장회사들이 손쉽게
주주총회 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영 효율성 제고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26년 전과 비교하여 현격하게 달라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자본시장 성숙도**를 감안할 때
이제 경영효율성이라는 명분만으로
새도우보팅 제도를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명목 GDP(조원) : '91 (238.9) '00 (635.2) '10 (1,265.3) '16 (1,637.4)

** KOSPI 시총(조원) : '91 (73.1) '00 (186.2) '10 (1141.9) '16 (1308.3)

새도우보팅이 주주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기업들의 주총 활성화 노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온 만큼, 우리 상장기업들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새도우보팅 제도의 그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새도우보팅 폐지가 결정된 이후
4년 7개월간의 충분한 유예기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도 폐지에 따른 걱정과 우려 보다는
이로 인한 기업 신뢰도와 투명성 제고와 같은
긍정적 효과에 주목하면서,
우리 경제와 자본시장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주총 활성화 방안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Ⅲ. 주주총회 활성화방안

내빈 여러분!

정부는 상장사협의회 및 증권유관기관들과 함께
새도우보팅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장기업이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로 상장폐지 등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소 상장규정을 개정할 것입니다.

기업이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의결 정족수를
미달한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도 지정하지 않고,

* 전자투표 ·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기업이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는 지정되나 상장폐지는 되지 않도록 상장폐지
사유에서 제외할 것입니다.

* '17.12.20일 금융위에서 상장규정 개정안 승인→ '18.1.1일 시행 예정

둘째,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로
이사와 감사가 선임되지 않는 경우에
상장기업들이 경영상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상법상 임시이사 및 감사제도 활용 방안을
상장사협의회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안내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주주들이 전자투표를 통해 보다 쉽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조성을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증권회사 주식거래시스템과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전자투표시스템을 연결하여
전자투표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전자투표에 활용할 수 있는
인증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전자투표의 활용도와 편의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 현재는 증권용 인증서만 활용

넷째, 내년 정기 주총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금융위, 금감원,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거래소, 예탁원,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등 모든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상장회사 주총지원 TF*」를 운영하여
상장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와
주총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 '17.12.14일 발족

상장회사 주총지원 TF는 단순히 의결정족수 미달로 어려움을
겪는 상장사들의 주총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넘어,
상장사들의 자율적인 주총 분산 개최 방안과
소액주주 참석 유인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의결권 행사에 대한 주주들의 인식을 개선하여
새로운 주총 활성화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투자자와 기업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노력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IV. 당부말씀

내빈 여러분!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부와 유관기관은

새도우보팅 폐지에 따른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주총회가 명실상부한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총 활성화는

특정 주체만의 노력으로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주주총회에 대한 인식과 문화·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최대한 많은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최근 국회(법사위)에서는 상장회사의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무화 논의와 별도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SK그룹은 5대 그룹 최초로 매 주총시마다
전자투표를 계속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상장회사들이
전자투표에 보다 열린 자세를 갖는데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로 일컬어지는
주주총회 집중개최 행태는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하루 빨리 시정해야 할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특정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빈도가 무척 높습니다.

예컨대 올해의 경우 3.24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한 상장사가
924개사로 전체의 45%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4년을 기준으로 특정한 3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한
상장회사의 비율이 영국 6.4%, 미국 10.3%, 일본 48.5%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3%에 달할 정도입니다.

회계감사와 사업보고서 제출 시기 등으로 인해
주총이 3월말에 집중 개최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18년째 매년 2월 주총을 개최하여
‘주총 개최 1호 기업’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는 넥센타이어의
사례는 제도적 측면보다는 주주총회를 대하는 기업의 인식이
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자마다 주주총회 개최가 가능한 상장법인의 최대 갯수를
설정하고 먼저 신고한 법인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대만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장회사 주총지원 TF」를 중심으로
상장회사들의 주주총회 분산 개최를 유도하기 위한
자율결의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내년 주총 시기부터 적용할 것입니다. (‘18.2월 발표)

V. 마무리 말씀

내빈 여러분!

한서(漢書) 매승전(枚乘傳)에
繩鋸木斷(승거목단) 水滴石穿(수적석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에게 국학대사로 추앙되는 지셴린*이 엄선한

* 季羨林(1911~2009), 전 베이징대 부총장

고전 148구에 포함되는 어구로,
“노끈으로 톱질을 해서 나무를 자르고
물방울로 돌에 구멍을 낸다”는 뜻입니다.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도 이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액주주 한 분 한 분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작지만,
작은 의결권들이 모여 기업 전체의 의사 결정을 이루고
나아가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주 여러분들께서 한 주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7 정유년(丁酉年)을 마감해 가는 지금,
“모바일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의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이병래 사장님과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